

## 과도기(2006~2008) नेपाल의 쿠마리 관습

- 종교적 의례에서 문화적 전통으로

박정석\*

### | 국문초록 |

네팔 카트만두 분지의 네와르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어린 소녀를 살아 있는 여신으로 숭배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는 탈레주 여신의 화현으로 간주되며, 힌두와 불교도 모두 숭배하고 있다. 탈레주는 두르가 여신의 다른 이름이다. 탈레주 여신은 네팔 왕국과 왕실의 수호신이며, 왕권은 여신에게서 비롯되며 만약 여신의 축원을 받지 못하면 왕국을 상실한다고 믿었다. 네팔의 정치적 과도기(2006~2008) 동안 쿠마리 관습과 관련된 두 개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2007년 12월 임시의회에서 네팔을 '연방민주공화국'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6년 제2차 민중봉기 이후 권력의 중심은 이미 왕에게서 수상으로 옮겨간 상태였다. 2007년 인드라 축제 당시 가넨드라는 사실상 폐위상태였음에도 임시정부의 수상이 쿠마리 티카 의례를 마친 뒤 몰래 쿠마리로부터 티카를 부여받았다. 가넨드라의 저의를 의심한 수상은 왕궁 경비대의 수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왕의 행동반경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 이후 쿠마리 관습은 왕권 의례에서 네와르 집단 및 네팔의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다른 하나는 2008년 대법원판결이었다. 2005년 한 인권운동가가 쿠마리 관습을 아동학대라고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제소인은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 특히 로열 쿠마리가 가족과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왕권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쿠마리 관습이 국가의 자산이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판결하였다. 쿠마리 관습은 민주공화국 네팔에서도 문화적 유산으로 존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왕이 아닌 대통령에게 축원하고 있다.

주요어: 네팔, 과도기, 카트만두 쿠마리, 쿠마리 관습, 종교적 의례, 문화적 전통

\*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hansan721@mokpo.ac.kr)

##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카트만두 쿠마리
3. 정치체제 변화와 쿠마리 의례
4. 인권침해 논란과 대법원판결
5.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힌두 왕국 네팔은 2006년 제2차 민중봉기 이후 사실상 왕정이 붕괴되었다. 2007년 1월 임시헌법이 공포되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복원되었으며, 2007년 12월 임시의회에서 네팔이 '세속연방제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였다.<sup>1)</sup> 2008년 제헌국회에서 힌두 왕정 종식 선언과 함께 네팔이 '연방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였다. 힌두 왕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면서 권력의 중심이 왕과 왕실에서 대통령과 내각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정부는 왕권과 관련된 기존의 제도와 상징을 삭제하거나 제한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착을 도모하였다. 2006년 제2차 민중봉기부터 2008년 왕실 철폐까지는 사회정치적으로 '과도기(interim period)'였다. 임시정부의 수반과 구 체제의 왕이 공존하는 과도를 거치면서 곳곳에서 과거의 관습과 새로운 이념이 충돌하였다. 특히 왕권과 관련된 종교적 의례에서 충돌과 변화가 극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 관습이었다.

신구 정치체제의 교체기에 쿠마리 관습과 관련된 두 가지 상징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2007년 카트만두에서 쿠마리의 티카(tika) 의례를 두

---

1) 2007년 1월 제정된 임시헌법 제4조 1항에 '네팔은 독립적, 통일적, 자주적, 세속적, 포용적, 및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2007년 12월 임시헌법 제4조 1항은 '네팔은 독립적, 통일적, 자주적, 세속적, 포용적 및 연방제 민주공화국'으로 수정되었다.

고 발생했던 수상과 국왕 사이의 의례적 경쟁이었다. 2007년 10월 2일 수상 코이랄라(Girija Prasad Koirala)가 국방부 장관에게 나라얀 히티(Narayan Hiti) 왕궁을 경비하는 경호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왕좌에서 물러난 가넨드라가 인드라 축제 마지막 날이었던 10월 1일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의 축원을 받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쿠마리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코이랄라 수상이 하누만 도카 광장에서 쿠마리로부터 티카 의례를 수행하고 한 시간쯤 뒤에 가넨드라가 하누만 도카 광장에 등장하였다. 사실상 폐위상태였던 가넨드라가 쿠마리로부터 티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와 내각은 곧바로 거세게 비난하였다<sup>2)</sup>. 인드라 축제에서 카트만두 쿠마리로부터 티카를 받는 의례적 행위는 수수자가 국가의 공식적 수반임을 표상한다.<sup>3)</sup>

다른 하나는 쿠마리 관습에 대한 대법원판결이었다. 2008년 8월 16일 대법원은 쿠마리 및 쿠마리 관습과 관련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sup>4)</sup> 2005년 한 인권운동가가 쿠마리 관습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억압적인 제도라고 제소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쿠마리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었으며, 쿠마리의 업무가 일반적인 아동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sup>5)</sup>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쿠마리가 비할 데 없는 권리와 월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쿠마리의 교육, 이동의 자유, 의료 보호 등과 같은 권리의 보장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

2) *Outlook*, 2007.10.02.

3) ‘카트만두 쿠마리’는 정확하게는 바산트푸르(Basantpur) 쿠마리이다. 카트만두에는 바산트푸르 쿠마리를 비롯하여 4명의 쿠마리가 있었지만, 바산트푸르 쿠마리가 카트만두 말라 왕국에 이어 통일 힌두 왕국에서도 왕실 쿠마리로 지정되면서 ‘카트만두 쿠마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4) Ananda Mohan Bhattarai(ed.), *The Landmark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Nepal on Gender Justice*, Lalitpur: National Judicial Academy, 2010.

5) Chiara Letizia, “The Goddess Kumari at the Supreme Court”, *Focaal-Journal of Global and Historical Anthropology* 67, 2013, p.38.

문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쿠마리 관습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세속적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위의 사례들은 쿠마리 관습이 종교정치 국가였던 힌두 왕국에서는 왕권의 신성성을 상징하는 종교적 의례였지만, 세속 민주 공화국에서는 집단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했던 두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적 전환기에 발생했던 신구 체제 간의 의례적 경쟁 및 쿠마리 관습의 탈 종교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쿠마리 관습의 유래 혹은 역사적 근원을 소개하고, 힌두 왕국에서 세속 민주 공화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쿠마리 의례의 정치적 상징성을 두고 빚어졌던 갈등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쿠마리 관습을 아동 인권침해라고 제소했던 인권운동가의 주장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sup>6)</sup>

## 2. 카트만두 쿠마리

인도 아대륙에서 여성을 신격으로 숭배하는 전통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일반인들의 보편적 의례였다.<sup>7)</sup> 네팔에서 쿠마리 숭배가 기록에 나타난 시기는 6세기 무렵이다.<sup>8)</sup> 쿠마리 의례가 말라 왕국의 왕실 의례로 정착된 시기는 12세기 초반이었다.<sup>9)</sup> 13세기경부터 쿠마리가 탈레주(Taleju)

---

6)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주요 자료는 기존 문헌과 신문 기사이며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7) 인도 아대륙에서 처녀신 숭배의 전통은 칸야 쿠마리(Kanya Kumari) 사원, 쿠마리 푸자 및 칸야단(Kanyadan) 의례에서 잘 드러난다. 칸야단 혹은 칸야다나는 혼인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처녀)를 증여한다'는 의미이다. Michael R. Allen, *The Cult of Kumari*, Kathmandu: Madhab Lal Maharjan, 1975, pp.2~3.

8) Bikrama Jit Hasrat, *History of Nepal*, Hosiapur: V. V. Research Institute Book Agency, 1970, p.41.

여신의 화신으로 인식되면서 말라 왕의 수호신으로 숭배되었을 뿐 아니라 쿠마리 의례가 명문화될 정도로 확산되었다.<sup>10)</sup> 카트만두 왕국의 힌두 왕은 불교도인 샤카(Sakya) 카스트의 소녀를 쿠마리로 선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쿠마리의 비의적 힘에 기대어 물질적 이득과 영토 확장을 도모하였다.<sup>11)</sup> 카트만두 왕국에서 왕권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쿠마리 숭배는 통일 힌두 왕국에서도 살아 있는 여신으로 추앙받았다.<sup>12)</sup>

카트만두에서 쿠마리 숭배는 네와르 집단의 오랜 관습이었지만,<sup>13)</sup> 지금과 같은 쿠마리 의례는 18세기 중반 카트만두 왕국의 자야 프라카쉬 말라(Jaya Prakash Malla) 왕이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쿠마리의 비의적 힘과 신성성은 쿠마리 의례를 도입했던 자야 프라카쉬 말라 왕, 그리고 카트만두를 정복했던 고르카 왕국의 프리트비 나라얀 샤(Prithvi Narayan Shah) 왕과 관련된 일화로 거슬러 올라간다.<sup>14)</sup> 자야 프라카쉬 말라 왕은 카트만두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다. 쿠마리와 관련된 자야 프라카쉬 왕의 일화는 여러 개가 있지만(Demaury 2018, 8-12), 다음과 같은 내용이 대표적이다.

하나의 자야 프라카쉬 왕이 탈레주 여신이 소녀의 몸으로 현신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가 여신의 현몽으로 깨달았다는 내용이다. 자야 프라카쉬 왕 재위 시에 카트만두의 어린 네와르 소녀가 탈레주 여신의 신들림을 받았다고 한다. 탈레주 여신은 카트만두 왕국과 왕실 구성원들의 수호신이

9) Daniel Wright, *History of Nep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77, p.157

10) Allen, op. cit. p.14.

11) Jeffrey S. Lidke, "The Goddess within and beyond the Three Citi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2000, p.153.

12) Gérard Toffin, "Mythical and Symbolic Origins of the City", *Diogenes* 38(152), 2018, p.118.

13) John Mellowship, *The Enchanted World of Kumari*, Varnasi: Pilgrims Publishing, 2007, p.63.

14) Lidke, op. cit. p.155.

었다. 왕은 어린 소녀가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하면서 악귀가 씌운 것으로 판단하고는 도읍 바깥으로 추방하였다. 그날 밤 왕비 중 한 명이 발작을 일으키고는 여신의 신령이 자신의 몸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왕이 곧바로 어린 소녀를 불러들여 그녀를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로 선언하고는 그녀의 발 앞에 경배를 올렸다. 왕은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는 연례 축제로 만들었다.<sup>15)</sup>

다른 하나는 자야 프라카쉬 왕이 여신 탈레주에게 음욕을 품었다가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다는 일화이다. 자야 프라카쉬 왕은 재위 시에 탈레주 여신과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한다. 탈레주 사원은 하누만 도카의 옛 왕궁 안에 있다. 어느 날 왕이 여신의 아름다움에 반해 욕정에 사로잡힌 눈으로 여신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여신이 왕의 속내를 알아차리고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날 밤 왕의 꿈에 여신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오 가련한 왕이여, 너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으며 너의 왕조가 멸망할 날이 다가왔도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참모습을 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네와르 카스트에서 어린 소녀를 간택하면 내가 그녀의 몸에 현신할 것이다. 그녀를 여신 쿠마리로 숭배하라, 그녀를 숭배하는 것이 곧 나를 숭배라는 것이다’라고 현몽하였다. 여신이 꿈에서 예지한 대로 자야 프라카쉬 당대에 카트만두 왕국이 멸망하였다.<sup>16)</sup>

왕권과 관련된 쿠마리의 일화는 1768년 프리트비 나라얀 샤의 카트만두 공략과정에서 나타난다. 고르카 왕국의 나라얀 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카트만두를 침공했을 당시 카트만두의 왕은 자야 프라카쉬 말라였다. 카트만두 왕국의 신민들과 신하들은 인드라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축제의

---

15) Henry Ambrose Oldfield, *Sketches From Nipal*, London: W. H. Allen and Co, 1880, p.155.

16) Indra Majupuria & Patricia Roberts, *Living Virgin Goddess*, Kathmandu: M. Gupta, 2007, p.68.

혼돈 속에서 자야 프라카쉬 말라는 잘 무장된 강력한 고르카 군대를 대적할 수 없었다. 카트만두를 정복한 나라얀 샤 왕은 카트만두 주민들에게 축제를 계속하라고 허용하였다. 나라얀 샤가 왕좌에 앉자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가 나라얀 샤에게 티카를 발라주었다. 쿠마리 티카는 카트만두의 왕권이 말라 왕조에서 샤 왕조로 이양되었음을 상징하였다. 카트만두 쿠마리의 비의적 힘과 관련된 다른 일화는 1955년 트리부반(Thibhuvan Bir Bikram Shah) 왕의 서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인드라 축제 기간에 트리부반 왕이 왕세자 마헨드라(Mahendra Bir Bikram Shah)와 함께 티카 축원을 받기 위해 쿠마리를 찾아갔다. 잠시 졸고 있었던 쿠마리가 시종이 옆구리를 찌르자 깨어나서는 왕이 아닌 왕세자의 이마에다 티카를 발라주었다. 쿠마리가 왕세자에게 티카 축원을 내렸다는 소식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국왕은 물론 나라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수군덕거렸다. 이로부터 8개월 뒤 트리부반 왕이 사망하고 왕세자 마헨드라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쿠마리의 신통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sup>17)</sup>

쿠마리 승배는 카트만두 지역 네와르 집단의 전통적 관습이다.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카트만두 분지에는 11명<sup>18)</sup> 혹은 14명<sup>19)</sup>의 쿠마리가 존재하였다.<sup>20)</sup> 쿠마리로 선택된 어린 소녀는 ‘살아 있는 여신’으로 대우를 받는다. 쿠마리 중에서 ‘로열 쿠마리’로 불리는 카트만두 쿠마리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카트만두 쿠마리 선발은 8명의 의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위원회가 관장한다. 선발 위원은 왕실 사제(브라만), 탈레주

17) Mary M. Anderson, *The Festivals of Nepal*,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1, p.135.

18) Allen, op. cit. p.11.

19) Durga Shakya, *The Goddess Tulaja and Kumari in Nepali Culture*, Kathmandu: Vajra Books, 2013, pp.161~165.

20) 2008년 현재는 9명의 쿠마리가 남아 있다. Bhattarai, op. cit, pp.119~121.

사원의 사제, 왕실 점성술사 및 5명의 네와르 불교 사제(바즈라차르야 카스트)이다.<sup>21)</sup>

카트만두 쿠마리의 상세한 선발 과정과 절차는 외부인에게는 철저히 가려져 있다. 카트만두 쿠마리는 네와르 불교도 중에서도 샤카 카스트에서 선발되며, 나이는 대개 3살에서 4살이다. 쿠마리의 선발 조건은 원칙적으로 32개 항목이 거론되지만,<sup>22)</sup> 대개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 심한 병을 앓지는 않았는지, 특히 천연두와 같이 신체에 흔적을 남기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이빨이 빠지거나 이른 초경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는지 등이 주요 근거가 된다.<sup>23)</sup>

이와 같은 선발원칙과 달리 실제 선발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다. 우선 네와르 샤카 카스트 중에서 아버지가 카트만두의 바하(baha)<sup>24)</sup> 구성원이어야 한다. 대개 3-5세 사이의 소녀 중에서 신체에 흉터나 반점이 없는 아이가 선정된다. 네와르 소녀들이 거쳐야 하는 '이히'(ihi) 및 '바흐라(bahrah)'라 부르는 의사혼인 의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네와르 사회에서 '이히' 의례는 대개 4-10세 사이에 치루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벨(bel)'이라 부르는 과일과 상징적인 혼인을 한다.<sup>25)</sup> 이히 의례를 치른 소녀는 10-15세 무렵에 초경전 의례인 바흐라를 거행한다. 바흐라 의례는

---

21) Allen, op. cit, p.195.

22) 32개의 조건 중에는 어린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깨는 넓고 허리는 날씬해야 한다, 허벅지는 사슴과 같아야 한다, 성기는 좁고 오목해야 한다, 어깨는 똑바로 펴져야 한다, 40개의 이빨, 보리수 같은 신체 모양 등은 3~4세 어린아이가 갖추기 어려운 조건이다. Allen, op. cit, p.105.

23) Allen, op. cit, p.8.

24) '바하'는 네와르 불교도의 거주지의 정원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바하는 한 가족이 건설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거주한다. 바하는 네와르의 특정 집단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며, 네와르 사회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종교 조직체인 쿠티(guthi)의 근간이 된다.

25) Anne Vergati, *Gods, Men and Territory*, New Dehli: Manohar Publishers, 1995, p.63.



상징적으로 태양과 혼인하는 의식으로 12일 동안 햇빛이 들지 않은 방에만 있어야 하며 남성과의 접촉은 금지된다. 이들 의례 중 하나라도 치르면 ‘처녀’가 아닌 상태가 되어 쿠마리로 선발될 수 없다.<sup>26)</sup> 이런 조건에 어울리는 어린 소녀 몇 명을 사전에 물색하여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쿠마리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선발될 수 없다.<sup>27)</sup>

쿠마리 여신으로 간택된 소녀는 자신의 집에서 ‘쿠마리 첸’ 혹은 ‘쿠마리 가르’(Kumari Chen or Kumari Ghar)라 불리는 저택으로 거처를 옮긴다. 쿠마리 저택은 하누만 도카 광장 바로 옆에 있다. 카트만두의 옛 왕궁 건물과 연이어져 있는 쿠마리 첸의 정원과 건물은 18세기에 건축된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sup>28)</sup> 이곳에서 쿠마리는 전통적으로 쿠마리를 수발하는 세습 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한다. 쿠마리를 수발하는 가족 역시 샤카 카스트이다. 그래서 쿠마리 가족과 수발자 가족은 서로 친인척인 경우가 많다.<sup>29)</sup> 쿠마리는 공식 석상에서 항상 예복을 입고, 보석 장신구를 착용하고, 화려한 관(冠)을 착용한다. 하루 두 차례 발코니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쿠마리로 화장한 어린 소녀가 붉은색 옷과 호화스러운 황금 장신구를 치장하고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면 현지인들과 마찬가지로 관광객들도 경의를 표하게 된다.

네팔사람들은 쿠마리를 네팔의 수호신이자 으뜸 신격으로 믿고 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를 찾아와 숭배하고는 돈과 선물을 공양하면

26) Rashmila Shakya & Scott Berry, *From Goddess to Mortal*, Kathmandu: Vajra Publications, 2009, p.15.

27) 은퇴한 쿠마리 중 한 명은 딸과 손녀가 쿠마리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거절하였다. Allen, op. cit, p.24.

28) Isabella Tree, “A House for the Living Goddess”,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37(1), 2014a, p.156.

29)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로열 쿠마리로 생활했던 라쉬밀라 샤카(Rashmila Shakya)의 경우 쿠마리 수발자의 아내가 친고모였다. Shakya & Berry, op. cit, p.17.

서, 개인적 문제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요청한다. 쿠마리의 모든 몸짓과 표시는 좋은 징조 혹은 나쁜 징조로 해석된다. 왕실에서도 중대한 변고가 닥치면 먼저 쿠마리와 상의하였다. 연중 개최되는 중요한 축제마다 쿠마리가 참석한다. 인드라 축제에서 상징적으로 쿠마리가 왕의 이마에다 티카를 발라줌으로써 왕은 다음 한 해 동안 नेपाल의 통치할 수 있는 의례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왕은 관례에 따라 감사를 표하면서 황금 동전을 선물하고는 그녀의 발에다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다.

이론적으로 쿠마리가 생리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쿠마리의 자격이 박탈되고 다음 쿠마리가 선발된다. 쿠마리가 생리를 포함하여 신체에 피를 흘리는 상처가 난 경우에는 존엄성이 사라진다고 믿는다. 실제로는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후임 쿠마리를 물색하여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신구 쿠마리는 다사인 축제 시기에 교체된다. 그래서 새로 선발된 쿠마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의례가 다사인 축제의 희생제의인 경우가 많다.<sup>30)</sup>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의 역할이 끝난 소녀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은퇴한 쿠마리와 혼인한 남자들이 일찍 죽는다는 속설이 있지만, 은퇴한 쿠마리 대부분은 혼인하였을 뿐 아니라 무난하게 혼인 생활을 하였다.<sup>31)</sup>

---

30) 신구 쿠마리 교체가 다사인 축제와 겹치면서 다사인 축제의 희생제의와 쿠마리 선발과정을 혼동하기도 한다. 쿠마리 선발 과정에서 가장 왜곡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한밤중에 희생된 동물의 주검들 사이로 통과하면서 울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Allen, op. cit, p. 21. Oldfield, op. cit, p.317.

31) Him Lal Ghimire, "A Study of Living Goddess Kumari", *The Gaze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9, 2018, pp.31~32. Shakyā & Berry, op. cit, p.150. Durga Shakyā, op. cit, pp.262~263.

### 3. 정치체제 변화와 쿠마리 의례

2008년 6월 11일 가넨드라(Gyanendra Bir Bikram Shah)는 나라얀 히티 왕궁에서 카트만두 외곽에 마련된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왕궁에서 사저로의 거처 이동은 가넨드라 개인에게는 왕에서 일반인으로서의 신분 변화를 의미했지만, 역사적으로는 한 시대가 마감되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가넨드라의 퇴출은 당대 왕의 지배가 끝났을 뿐 아니라 왕정 자체가 몰락되었음을 표상하였다. 즉,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위해 가넨드라를 왕궁에서 몰아낸 것이 아니었다. 전임 왕의 퇴출은 샤 왕조와 왕정 자체를 종식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왕조의 마지막은 질서정연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왕으로서의 마지막 날 가넨드라는 체포되지 않았고, 군중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도 없었으며, 신하들로부터 추궁도 받지 않았으며, 폭력 혹은 기소의 위협도 없었다. 가넨드라는 기자회견을 마련하였으며 소지품까지 챙겨서 부인과 함께 검은색 세단을 타고 왕궁을 나갔다. 정부는 가넨드라에게 공식적으로 왕궁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강등 이후 일 년간 정부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40여 년간 견고하게 지탱되어왔던 네팔 왕정이 이처럼 조용하게 막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했던 정치적 변혁운동이 있었다.<sup>32)</sup> 힌두 왕정은 수십 년 혹은 수 세기 동안 서서히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다. 왕정이 종식되기 불과 몇 년 전까지 가넨드라의 형이었던 비렌드라가 입헌군주로 존재하였다. 비렌드라뿐만 아니라 가넨드라 역시 왕궁에서 퇴출되기 3년 전까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군대를 통솔하였다. 갑작스러운 왕정 종식은 제도 자체의 부패 혹은 무능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민중봉기의 결과라고 할 수

---

32) Anne T. Mocko, *Demoting Vishnu*,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2.

있다. 네팔의 왕정 종식은 왕을 처형하거나 징벌하지 않는 혁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2006년 제2차 민중봉기 이후 왕정 반대파는 왕 개인이 아닌 사회적 제도로서의 왕실 자체를 향해 체계적으로 반발하였다. ‘과도기’로 불리는 2년 동안 왕실 반대파들은 왕실을 지탱하고 있던 모든 사물, 장소, 행사, 의무, 특권 및 관계망에 왕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는 이들 장치를 정부의 수반에게 집중시켰다. 즉, 기존 왕권 의례를 왕에게서 박탈하여 왕이 아닌 과도기 국가수반이었던 수상의 소임으로 전환하였다. 가넨드라를 군주로 만들었던 모든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의례에서 그를 격리함으로써 왕으로서의 권위를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으며 ‘네팔 왕’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무너뜨렸다. 2008년 6월 가넨드라가 왕궁에서 퇴출될 당시에는 이미 강등 작업이 완료되어 있었기에 소란이나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넨드라는 왕궁에서 퇴출되기 수개월 전부터 사실상 왕으로서의 공식적 역할이 중지된 상태였다. ‘왕’으로서의 가넨드라의 의례적 지위가 박탈되었던 상징적 사건 중 하나가 바로 2007년 쿠마리 티카 의례였다.

1768년 카트만두 정복 이후 2006년까지 샤 왕실이 힌두 왕국 네팔을 통치했으며, 국왕은 매년 쿠마리로부터 티카 축원을 받음으로써 의례적 신성성을 확보하였다. 쿠마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신빙성과 상관없이 샤 왕실과 쿠마리 사이의 근본적인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야기의 주제는 쿠마리 숭배자들이 기억하고 또 발화하고 있는 믿음의 근원이기도 하다. 즉, 샤 왕실은 무력으로 자야 프라카쉬 말라 왕의 군대를 정복하여 통일 네팔의 왕이 되었다기보다 인드라 축제와 쿠마리 의례를 전유함으로써 통일 네팔의 왕이 되었다. 영토 통일 이후에도 샤 왕들은 매년 티카 의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통치권을 갱신함으로써 네팔의 왕으로 건재하였다. 쿠마리로부터 티카를 받는 의식은 왕의 통치권 행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쿠마리의 티카 수여는 다음 한 해 동안 왕에게 통치권을 부여한다고 해석되었다.

왕이 후원자 혹은 참관인 신분으로 참여하는 여느 의례와 달리, 쿠마리 티카 의례에서 왕은 여신의 특별하고 내밀한 숭배자로 자리매김된다. 왕의 통치권은 여신의 지지에 달려 있다. 즉, 왕의 통치권은 취약하며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쿠마리가 왕의 통치권을 중재하고 정당화한다는 믿음 체계는 왕실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넨드라는 2001년 왕실 대참사 이후 왕으로 등극하였다. 가넨드라가 왕으로 등극하고 3개월 뒤에 인드라 축제가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쿠마리에게 쏠려 있었다. 대참사가 발생했던 왕실은 정치적으로 단순한 취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왕권 역시 형식적 갱신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왕으로서의 가넨드라의 위치는 매우 불안정하였기에 의례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었다. 당시 상황은 왕의 교체뿐만 아니라 쿠마리도 교체된 상태였다. 전임 쿠마리가 은퇴하고 3살짜리 소녀가 새로운 쿠마리로 자리하고 있었다. 두 체제의 교체기에 신임 쿠마리와 신임 왕 사이에 긴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기에 왕실에서는 노심초사하였다. 주변의 염려와는 달리 2001년 쿠마리 의례는 순조롭게 끝났다. 새 쿠마리가 주저 없이 새 왕에게 티카를 부여하였다. 언론에서는 가넨드라의 앞날에 서광이 비쳤다고 앞다퉈 보도하였다.<sup>33)</sup> 쿠마리 의례는 변변한 즉위식도 없이 왕좌에 올랐던 가넨드라를 새로운 왕으로 각인시켜 주었다.

2006년 제2차 민중봉기 이후 가넨드라의 직접 통치체제는 크게 위축되었다. 그런데도 가넨드라는 그해 9월 인드라 축제에 참석하였다. 가넨드라가 인드라 축제에 참석한 것은 쿠마리와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다음 해에도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정당화하려는 행위였다. 정치권에서는 간접적으로 가넨드라의 축제 참석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

33) Mocko, op. cit, p.130.

축제를 주관하는 지역 종교단체에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왕을 초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유폐 상태였던 가넨드라가 행사에 참석하려 하자, 마오이스트를 비롯하여 진보적 성향의 청년단체에서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2006년 9월 2일 삼엄한 경비 속에 가넨드라는 하누만 도카 광장에 도착하여 인드라 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행정부의 각료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외국 대사들의 참석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006년 가넨드라가 참석했던 인드라 축제는 왕실을 표상하는 찬가와 왕실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대의 구호가 교차하였다.<sup>34)</sup> 축제 첫날에 벌어졌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가넨드라는 5일 뒤 쿠마리 의례에 참석하여 쿠마리로부터 티카를 받았다. 이처럼 과도기 초기에는 왕의 의례적 역할이었던 전통적 행사에 가넨드라의 참석을 제한하지 않았다.<sup>35)</sup> 하지만 2007년 인드라 축제는 2006년과는 확연하게 분위기가 달라졌다.

2007년 임시헌법 제정으로 국왕이 폐위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쿠마리 의례를 비롯하여 왕 혹은 왕의 대리인이 참석했던 국가적 의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2007년 정치체제가 내각제로 전환되면서 왕이 아닌 수상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었다. 왕실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하였다. 임시헌법이 선포되고 마오이스트 공산당이 내각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왕의 사진과 초상화는 모든 국가 상징물에서 제거되었다. 과거 왕이 참석했던 종교 의례에는 수상이 국가수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sup>36)</sup> 2007년 인드라 축제 마지막 날 코이랄라 수상이 쿠마리

34) Michael Charles Baltutis, "The Festivals of Indra",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2008, p.314.

35) 가넨드라는 2006년과 2007년에는 나라얀 히티 왕궁에서, 2008년에는 사저에서 다사인 축제를 맞이하여 티카를 수여하는 의례를 집전하였다.

36) 2007년 파탄의 마친드라나쓰(Machindranath) 축제의 보토(boto) 의례 및 크리쉬나 잔마쉬타미(Krishna Janmashtami) 행사에는 가넨드라 왕이 아닌 코이랄라 수상이 참석하였다.

의례에 참여하여 티카를 수여하였다. 코이랄라 수상이 티카 의례를 수행하고 난 다음 몇 시간 뒤에 가넨드라가 몰래 쿠마리로부터 티카를 받았다.<sup>37)</sup>

2007년에 인드라 축제에서 쿠마리는 ‘왕권 의례’를 두 번 수행한 셈이었다. 하지만 둘 다 전통적인 법도에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알려졌지만, 당시 쿠마리가 코이랄라 수상과 가넨드라 왕에게 티카를 수여했던 방식이 서로 달랐다. 쿠마리는 코이랄라 수상에게는 오른손으로 평범한 붉은색 가루 티카를 부여했으며, 가넨드라 왕에게는 왼손으로 쌀가루가 혼합된 티카를 발라 주었다.<sup>38)</sup> 수상은 전통적인 의례 시각에 의전을 갖추어 티카를 부여받았지만, 그는 전통적인 수령인이 아니었으며 오른손으로 티카를 받았다.<sup>39)</sup> 반면 왕은 전통적인 수령인이었으며 왼손으로 티카를 받았지만, 비전통적인 시각에 전통적인 사열과 공식적인 의전 없이 티카를 받았다.<sup>40)</sup>

코이랄라 수상과 가넨드라 왕이 같은 날 쿠마리 티카를 받음으로써 친구 체제가 의례적 상징을 두고 경쟁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하지만 쿠마리 티카를 두고 벌여졌던 의례적 경쟁에서 세속정부를 대표하는 수상과 기존 체제를 상징하는 왕 가운데 어느 쪽도 완전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수상은 쿠마리 의례에서 왕의 전통적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쿠마리 티카를 받음으로써 상징적 지위를 일부 유지할 수 있었다. 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가넨드라는 쿠마리로부터 티카 축원을 받음으로써 의례적으로나마 ‘왕’의 지위를 유지

---

37) *BBC News*, 2007.11.05.

38) Shakyā & Berry, op. cit, p.156.

39) 쿠마리는 일반인에게는 오른손으로 티카를 부여하지만, 왕에게는 왼손으로 티카를 3차례 부여한다. 쿠마리의 왼손은 성스러운 힘을 지녔다고 간주되며, 쿠마리의 왼손으로 티카를 받는 사람은 왕이 유일하다. Shakyā & Berry, op. cit, p.53.

40) Mocko, op. cit, p.142.

하고자 갈구하였다.<sup>41)</sup> 하지만 가넨드라의 쿠마리 의례 참석은 왕실의 존폐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sup>42)</sup>

코이랄라 수상이 쿠마리 티카 의례를 거행했음에도, 폐위된 국왕 가넨드라가 티카 의례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그의 의도를 두고 일대 소란이 일어났다.<sup>43)</sup> 가넨드라의 비공식적 쿠마리 방문에 대한 코이랄라 수상의 대응은 가넨드라의 경호원 감축이었다. 경호원 감축 지시는 정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이전까지 국군 통수권자였던 왕과 왕실의 경호원 수를 줄임으로써 왕으로서의 위엄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왕과 군부 사이의 연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경비대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왕궁과 왕실 보호를 정부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정세는 왕실 반대 세력이 득세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엄한 경호 없이는 함부로 왕궁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경호원 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왕의 비공식적 방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차후 왕실의 보호 및 이동을 정부의 뜻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007년 12월 28일 임시내각은 नेपाल을 ‘세속’ 국가임을 선포하였다. 마오이스트 공산당 의장이었던 프라찬다는 합법적으로 왕정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하였다.<sup>44)</sup> 가넨드라는 임시정부의 연방 민주 공화국 선포

---

41) 가넨드라는 2008년 공식적으로 왕의 지위에서 폐위되었다. 하지만 일반인 신분이었던 2010년에도 은퇴한 쿠마리들을 사저로 초청하여 티카 축원을 받았다.

Gérard Toffin, *From Monarchy to Republic*, Kathmandu: Vajra Books, 2013, p.71.

42) [http://blog.com.np/2007/10/01/gyanendra\\_challenging\\_the\\_peoples\\_verdict\\_visits\\_kumari\\_ghar](http://blog.com.np/2007/10/01/gyanendra_challenging_the_peoples_verdict_visits_kumari_ghar)(검색일, 2020.12.18.).

43) 가넨드라의 쿠마리 의례 참석은 임시정부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최초이자 유일한 사건이었다. Mocko, op. cit, p.141.

44) 사람들은 바로 이날 नेपाल이 공화국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두고 설왕설래하였다. 왜냐하면 왕실 철폐는 제헌국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식적으로 재가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Bal Gopal Shrestha, “The End of Monarchy in Nepal and Its Delicate Journey towards a Republic”, *Contributions to Nepalese Studies* 35(1), 2008, p.63.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외 대중매체에다 왕정 폐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임시정부의 왕정 폐지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비난하였다. 가넨드라는 왕권이 종식되었음에도 여전히 왕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나라 안 히티 왕궁에 거주하고 있었다. 가넨드라가 왕정복고에 대한 야심<sup>45)</sup>을 드러내자 왕당파들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과 집회가 잇따랐다.

2008년 4월 10일로 총선 일자가 발표되었지만, 대중들은 제대로 총선이 실시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이미 두 차례나 총선 일자가 연기되었던 탓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테라이 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감행하면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총선거 이후 구성된 제헌국회 첫 회의에서 힌두 왕정 종식과 함께 नेपाल을 연방민주공화국이라고 선포하였다. 왕과 수상이 티카 의례를 두고 충돌했던 과도기적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2008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힌두 왕국 시절 왕권을 강화하는 상징적 장치로 작동되었던 국가적 축제 혹은 의례의 성격을 두고 세속정부와 특정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2008년 총선거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 마오이스트 공산당이 종교축제 지원금을 축소하자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반발하였다. 마오이스트 정부는 동물희생 의례를 종식한다는 명목으로 인드라 축제를 지원했던 정부 예산을 삭감하였다. 정부의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 측 정치인들과 네와르 종족집단은 고래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면

---

45) 과도기 동안 가넨드라는 파슈파티 사원의 쉬바라트리(Shivaratri) पू자에 참석하였으며, 카트만두 남쪽의 닥신칼리(Dakshinkali) 사원에서 희생제의를 올리기도 하였다. Shiva Rijal, “Rituals, State and Legiti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stic Ideology* 1, 2018, p.65.

서 예산 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sup>46)</sup> 대중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정부에서는 재무부 장관을 내세워 정부의 조치가 특정한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종교축제를 위한 지원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재무부 장관이었던 바부 람 바타라이는 야당을 향해 종교적 및 집단적 정서를 정치적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네팔은 세속국가이며 정부는 모든 공동체의 종교적 관행을 보호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2008년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병용하는 새로운 정부 체제가 도입되면서 네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야다브(Ram Baran Yadav)는 마데시 출신으로 하층 카스트였다. 2015년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는 브라만이었지만 여성(과부)이었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힌두 왕권을 지행했던 의례에 참석해야 했다.<sup>47)</sup> 즉, 대통령은 카스트, 종교, 젠더 등 출신과 배경을 불문하고 과거 힌두 왕이 주빈 혹은 제주였던 국가 의례에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오래된 전통을 고수하려는 일부 힌두 극우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sup>48)</sup>

세속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네팔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새로운 의

4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al Agencies, 2008.09.21.

47) 2008년 7월 21일 대통령으로 선출된 야다브가 7월 26일 파탄 지방청으로부터 라토 마친드라나쓰 축제의 주요 행사인 보토 의례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전까지 왕이 참석했던 의례적 행사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쿠마리 티카 의례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했다(Ranjitkar, 2009). 당시 대통령과 수상은 총사령관 임면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48) 2015년 12월 대통령 반다리가 람 자나키(Ram Janaki) 사원의 의례에 참석하려다 충돌이 발생하였다. 반다리의 사원 출입을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웠던 표면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CPN(UML)이 마데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7개의 연방을 구성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여성이자 과부인 반다리가 사원에 출입하는 행위가 부정하다는 취지였다. 반다리 대통령의 방문 행사가 끝난 다음 UDMF(United Democratic Madhesi Front) 당원들과 지역의 청년단체에서는 사원을 정화하는 의미에서 갠지스 강에서 떠온 물로 청소를 했다. *My Republica*, 2015.12.18.

례적 지위와 정체성은 변화하고 있는 नेपाल의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전통적 축제 혹은 의례의 제도적 존속과 결부되어 있다. 즉, 대중적으로 중요한 축제와 의례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이들 의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의례의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수반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이런 변화는 기존 의례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실천적 차원에서 의례의 성격을 변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정치 국가였던 힌두 왕국이 종식되고 국가체제가 세속민주공화국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 및 쿠마리 관습은 여전히 네와르 집단의 문화적 전통이자 नेपाल의 기층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상으로 존속되고 있다.

#### 4. 인권침해 논란과 대법원판결

1768년 नेपाल 통일 이래로 힌두이즘은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었다. 샤 왕실은 힌두이즘을 바탕으로 신민들을 조직화하였으며 힌두화 정책을 고수하였다. 즉, 세속국가로 전환되기 전까지 नेपाल은 힌두 국가였으며, 왕국과 왕실은 힌두이즘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2007년 임시헌법에 따라 नेपाल은 세속국가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임시헌법에서 ‘세속’국가의 성격과 정의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쿠마리 관습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대중매체와 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쿠마리 제도에 대해 비난이 제기되었다. NGO 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이 쿠마리 전통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면서 쿠마리 제도의 적합성은 대중들의 관심사로 급부상하였다.<sup>49)</sup> 쿠마리 제도를 비난하는 측에서는 어린 소녀가 비자발적으로 감금당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먹고, 입고 놀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교육의 권리마저 차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은퇴한 쿠마리가 평생 독신으로 살아간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50)</sup>

쿠마리의 인권 문제는 2002년 9월 네팔의 저명한 여성운동가이자 국회의원이었던 반다리가 쿠마리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면서 크게 부각되었다.<sup>51)</sup> 반다리는 쿠마리 전통이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어린 소녀가 평범한 일상에서 격리될 뿐 아니라 생리가 시작되면 쿠마리 지위에서 물러나야 하는 전통은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성과 속의 세계를 오가면서 심리적 장애가 발생한다고 설파하였다.<sup>52)</sup> 반다리의 주장 이후 인권 및 아동권리 옹호론자들이 공개적으로 쿠마리 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권변호사로 국회의원원이었던 말라(Sapana Pradhan Malla)<sup>53)</sup>는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쿠마리 제도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5년 네와르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였던 푼 데비(Pun Devi Maharjan)가 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쿠마리 전통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sup>54)</sup> 푼 데비는 쿠마리로 선정된 어린 소녀들이 가족을 떠나 격리되고, 여신으로서 축제와 의례에 헌신해야 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쿠마리 관습이 일종의 아동 착취이며 아동의 육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억압적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쿠마리가 스스로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 없는 어린

---

49) <http://medium.com/@razenmanandhar/living-goddess-kumari-and-human-rights-issues>(검색일, 2020.06.11.).

50) 2015년 한국에서도 TV 방송을 통해 쿠마리 관습이 소개되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일어났다. 『데일리 한국』, 2015.05.22.

51) 반다리는 CPN(UML)의 부의장 및 전국네팔여성연합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에는 과거 자신이 폐지를 주장했던 쿠마리 의례에 대통령 신분으로 참석하였다. *The Himalayan*, 2016.09.15.

52) Jenny Dubin, “Divine Childhood”, *Nepali Times*, 2004.09.24-30.

53) 사파나 프라단 말라는 ‘여성, 법률 및 발전을 위한 포럼’을 창립하였다.

54) Toffin, 2013, p.70.

나이에 부모에 의해 결정되었기에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수 세기 동안 종교적 믿음으로 자리 잡은 전통을 폐지한다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푼 데비 역시 쿠마리 관습이 오랫동안 네팔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sup>55)</sup> 이런 맥락에서 쿠마리 관습을 카트만두 분지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전제하고는 관습의 폐지보다는 인권이 주창하는 규범과 가치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푼 데비가 제출했던 진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56)</sup>

쿠마리 관습이 종교적 및 문화적 유산이긴 하지만, 쿠마리로 지정된 소녀들은 착취와 차별의 피해자이다. 이들은 이동, 놀이하기, 가족과 함께 살기, 의복, 학교 가기, 공부하기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한다. 또한 은퇴한 쿠마리들에게는 사회적 보장과 재적응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헌법에 보장된 쿠마리의 권리,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권, 평등권, 이동 및 거주 자유, 집회의 자유, 적절한 시간에 자신의 의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학교 교육받을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유, 신체에 대한 개인적 권리, 거주권 등이 제한받고 있다. 쿠마리 소녀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박탈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퍼져 있는 미신으로 말미암아 쿠마리로 생활했던 소녀들의 결혼 생활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쿠마리들의 아동권 침해 및 그들에게 가해졌던 차별과 착취에 대한 보상으로 은퇴한 쿠마리들을 사회적 안전과 재적응을 어떤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는 쿠마리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차별

55) Zuchanbeni Humtsoe, "The Living Kumari Goddess of Nepal", *Suraj Punj Journal f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9(5), p.34.

56) Writ No. 3581. Bhattarai, op. cit.

과 착취를 차단하기 위해 어떠한 보호장치도 마련해 주지 못했다. 그 결과 쿠마리와 은퇴한 쿠마리의 삶은 처량한 상태가 되었다.

푼 데비의 주장에 호응하여 국내외 인권운동가와 단체들에서 쿠마리 관습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통적인 종교의 자유 및 문화의 자유와 국제법 및 네팔 헌법에서 보장하고 개인적 권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sup>57)</sup>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는 쿠마리 관습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를 불러왔지만,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었다.<sup>58)</sup> 일각에서는 이들 보고서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보고서 작성자 중에서 어린 소녀를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네와르 사회의 전통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조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하였다.<sup>59)</sup>

한편 푼 데비의 공익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쿠마리 관습이 오래된 문화적 유산임을 인정하면서, 쿠마리 관습으로 청원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 자체를 각하하였다. 수상과 각료회의는 서면 답변을 통해 청원자의 어떤 권리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행위를 침해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각하하였다. 법무의정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 Management)에서도 청원자의 어떤 헌법적 권리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각하하였다. 문화관광항공부(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Civil Aviation) 역시 서면 답변을 통해, 쿠마리를 살아 있는 여신으로 숭배하는 관행은 중세부터 이어져 왔으며 청원자 역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쿠마리 관습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각하하였다. 여성아동복지부(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에서는 중세부터 지

---

57) Chiara Letizia, 2013, p.37.

58) 푼 데비의 대법원 제소를 지지했던 CESC(R)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에서는 2008년 보고서 이후 네팔의 악습 목록에서 쿠마리 관습을 삭제하였다.

59) Isabella Tree, *The Living Goddess*, London: ELand, 2014b, p.229.

속되어 온 쿠마리 관습을 정부가 폐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각하하였다. 교육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는 정부에서 가용한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쿠마리들에게 적절한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 어떤 어린이도 차별하지 않으며, 쿠마리들도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sup>60)</sup>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은 쿠마리 관습이 정부가 도입하여 관리하는 관습이 아니기에 직무집행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쿠마리 관습과 관련하여 정부는 직접으로 개입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원자는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고소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쿠마리 관습과 청원자 개인의 권리를 분리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에서 회피하였다. 이처럼 세속정부는 종교와 관련된 사안과 거리를 두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현재의 쿠마리와 은퇴자 쿠마리에게 매월 지원금과 연금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쿠마리 관습을 지원하고 있었다.

대법원에 쿠마리 관습을 인권침해로 제소했던 폰 데비는 이후 네와르 사회 및 지역 언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폰 데비의 배후에 특정 정당과 단체가 있다거나 쿠마리 인권 문제를 제기했던 비드야 반다리 및 사파나 프라단 말라의 사주를 받았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sup>61)</sup> 네와르 사회는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쿠마리 전통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네와르 문화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전면적으로 반발하였다. 쿠마리 관습에 대한 비판을 두고 네와르 사회의 활동가들은 브라만들이 배후에서 네와르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이들은 쿠마리 관습에 대한 공격의 본질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네와르 집단의 풍부한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로되었다

---

60) Bhattarai, op. cit, pp.112~113.

61) Letizia, 2013, p.37.

고 판단하였다.<sup>62)</sup>

푼 데비가 쿠마리 관습을 대법원에 제소했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카스트 간 갈등이다. 하층 및 중층 카스트는 푼 데비의 제소를 상층 카스트가 지배하고 있던 폐쇄적 종교 의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였다. 다른 하나는 왕과 쿠마리의 상징적 관계이다.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가넨 드라는 자신의 의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여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쿠마리의 지지를 받아야만 할 처지에 있었다. 따라서 쿠마리에 대한 공격은 바로 전제적인 왕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었다.<sup>63)</sup>

쿠마리 관습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크게 두 가지 논리로 대응하였다. 하나는 쿠마리 전통이 네와르 공동체의 배타적 영역에 해당되며, 집단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자 종교적 권리이기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푼 데비가 제소했던 청원서 내용이 쿠마리 전통의 고귀한 명예와 영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쿠마리 관습이 네와르 사회 내부에서도 상층 불교 카스트인 샤카 집단 및 바즈라차르야(Vajracharya) 집단 고유의 전통이며, 마흐라잔 카스트 출신인 푼 데비가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반박하였다.<sup>64)</sup> 네와르 지식인과 쿠마리 가족들 역시 쿠마리 관습이 네와르 집단의 고유한 '문화'라고 항변하였다.<sup>65)</sup>

2006년 10월 대법원의 지시로 쿠마리의 역사 및 인권 조사를 목적으로 위

---

62) David N. Gellner, "Review of 'Living Goddess' a Film by Ishbel Whitaker", *Himalaya* 28(1&2), 2010, p.90.

63) Tree, 2014b, p.225.

64) 푼 데비가 지적했던 쿠마리 전통의 악습으로는 '아동학대, 강요, 사제의 신체검사, 괴기한 입사의례 등이었다. 로열 쿠마리는 쿠마리 사원 건물 내부에서만 오갈 수 있고, 관람객에게 보여주기(darshan)를 강요받는 등 억류 상태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푼 데비의 주장 대부분은 소문에 의존한 내용이었으며, 은퇴한 쿠마리, 쿠마리 가족, 사제 혹은 보호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항이 아니었다. Tree, 2014b, pp.225~226.

65) Letizia, 2013, p.38.



원장 1명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국장이 맡고, 조사위원 3명은 소송인, 이해관계자의 대리인, 카트만두 분지의 역사 문화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는 네팔 문화를 대표하는 제도로 존속하고 있으며, 카트만두 분지의 네와르 문화의 일상적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에 인용된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66)</sup>

쿠마리로 선정된 소녀의 지위는 균일하지 않으며 장소에 따라 상이하였다. 일반적으로 쿠마리는 4세-12세 사이의 소녀들 가운데서 선발되었다. 쿠마리의 교육, 건강, 가족, 음식, 유지, 복장, 개인적 자유 등은 공동체마다 상이하였다. 카트만두 및 파탄의 쿠마리는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학교에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하루에 두세 시간 동안 개인교사에게 교육을 받고 있었다. 박타푸르, 분가마티, 키라갈(Kilagal)의 쿠마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여느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반면 마칸 타리니(Makhan Tarini) 및 미카바할(Mikhabahal)의 쿠마리는 학교에 가는 데는 제약이 없지만, 등교할 때는 반드시 붉은색 옷을 입어야 한다. 가바할(Gabahal) 쿠마리는 학교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쿠마리의 아버지가 쿠마리를 학교에 보내고 있었다. 무바할(Mubahal) 쿠마리 역시 규범상 학교에 다니지 말아야 함에도, 집에서 교육받는 데는 제약이 없었다. 카트만두, 파탄, 박타푸르에서는 현직 쿠마리는 물론 은퇴한 쿠마리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재정지원이 없었다. 거주 이동의 자유 및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편차가 심했다. 카트만두 쿠마리의 경우, 거주지가 쿠마리 거처로 한정되었으며 쿠마리 거처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파탄 쿠마리는 거처가 사저였음에도 거처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다른 지역의

---

66) Bhattarai, op. cit. pp.115~117.

쿠마리들 역시 거주지가 쿠마리 거처로 제한되었다. 가바할 및 무하발 쿠마리는 본가에 머무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음식물 역시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다. 카트만두 및 파탄에서 하루 두 차례 음식 공양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었다. 카트만두, 파탄, 키라갈, 가바할, 무바할 쿠마리는 의사들의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서는 제한이 없었다. 박타푸르와 분가마티 쿠마리는 공식적 의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붉은색 옷만 입도록 강요되었다. 은퇴 이후 쿠마리의 사회적 적응은 대체로 특이한 문제가 없었지만, 카트만두 및 무바할 쿠마리는 혼인이 쉽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쿠마리는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믿음이 있었지만, 혼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2008년 8월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청문회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쿠마리의 역사적 배경 및 현재 상태, 헌법과 국제법에 명시된 권리 침해 여부, 소송인이 제기했던 안전 채택 여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sup>67)</sup>

첫째, 카트만두 분지의 쿠마리 관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수 세기에 걸쳐 카트만두 분지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삶과 분리 불가능한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다. 쿠마리 관습을 따르는 종교공동체는 쿠마리를 살아 있는 여신으로 대우한다. 쿠마리, 쿠마리 가족 및 쿠마리 관련자들은 모든 종파와 일반인들이 존경심을 표하기에 쿠마리 관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쿠마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혹은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지정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

67) Bhattarai, op. cit, pp.117~118.

둘째, 쿠마리로 선정된 소녀의 나이 및 쿠마리로 선정된 이후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쿠마리는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쿠마리 관습이 헌법과 국제조약에서 부여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였다. 쿠마리 관습은 힌두이즘과 불교를 아우르고 있는 네팔 사람들의 종교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라고 명시하였다.

셋째, 쿠마리들은 쿠마리를 신봉하는 종교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및 종교적 삶에 공헌하고 하고 있기에 정부는 쿠마리 및 은퇴한 쿠마리를 위한 연금과 사회적 안전장치 등 적절한 배려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즉, 쿠마리 문화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어떤 경제적, 사회적, 법적, 행정적 조치가 쿠마리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안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부 산하에 조사위원회 설치를 주문하였다.

요컨대 대법원은 쿠마리 사례에서 인권을 위배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쿠마리 관습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관련 공동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쿠마리의 의례적 행위는 수용 가능한 전통적인 숭배이며 아동 노동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침해로 제소되었던 항목들은 과거 후진적 관습에서 비롯된 선입견의 발로이며,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쿠마리 전통을 네와르 사회 및 네팔의 문화적 자산으로 인정하였다.<sup>68)</sup> 대법원은 순수하면서 차별이 없는 ‘종교’와 사회적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근대적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문화’ 혹은 ‘전통’을 구별하였다.<sup>69)</sup> 한마디로 종교는 불변하며 탈역사적이기에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지만, 전통과 관습은 역사적 변

68) Letizia, 2012, p.92.

69) Letizia, 2013, p.39.

화에 따라 수정가능하고 또 수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대법원판결 이후 쿠마리 관습은 왕권과 연계된 종교적 의례에서 네와르 사회의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다.

## 5. 맺음말

네팔은 국가체제가 힌두 왕국에서 민주 공화국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문화적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힌두 왕국의 왕권 의례였던 쿠마리 관습을 둘러싼 의례적 경쟁과 인권침해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제2차 민중봉기 이후 왕정이 종식되면서 왕권 또한 중단되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힌두 왕국 시절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과거'의 왕과 세속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현재'의 수상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쿠마리 의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2007년 쿠마리 티카 의례를 두고 벌어졌던 가넨드라 왕과 코이랄라 수상의 의례적 경쟁은 왕권 이양 및 왕궁 폐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다. 기존 체제에서 국왕이 참여했던 모든 의례에서 왕과 관련된 상징물과 흔적이 삭제되었다. 가넨드라가 왕궁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축출되면서 '왕'으로서의 존재가 지워졌다. 2008년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쿠마리 의례를 비롯한 기존 왕권 의례의 주재자는 대통령이 되었다. 민주공화국 네팔에서 쿠마리 의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와르 집단의 전통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한편 2005년 네팔의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였던 폰 데비가 정부를 상대로 쿠마리 관습이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대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외 인권단체 및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08년 대법원은 쿠마리 의례는 종교적 영역이기에 정부가 종교에는 개입할 수 없지만, 문화적

관습으로서의 쿠마리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판결은 쿠마리와 관련된 관행과 전통은 역사적 문헌이나 기록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단지 전통, 관습, 실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판결 이후 전통적인 종교 의례로 간주되었던 쿠마리 관습이 수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현직 쿠마리를 비롯하여 은퇴한 쿠마리들에게도 사회경제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쿠마리 관습을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전선은 외부인과 내부인의 대결로 확장되었다. 네와르 사회 내부에서도 샤카 카스트가 아닌 외부인은 자신들의 오랜 문화적 전통인 쿠마리 관습을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외부인은 비난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요컨대 쿠마리 관습은 네와르 사회 나아가 नेपाल의 고유한 전통이며, 네와르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지켜나가야 할 문화적 자산이라고 새롭게 정의되었다.

| 참고문헌 |

- Allen, Michael R., *The Cult of Kumari: Virgin Worship in Nepal*, Kathmandu: Madhab Lal Maharjan, 1975.
- \_\_\_\_\_, *Ritual, Power and Gender: Explorations in the Ethnography of Vanuatu, Nepal and Ireland*, New Delhi: Monhar Publications, 2000.
- Anderson, Mary M., *The Festivals of Nepal*,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1.
- Baltutis, Michael Charles, "The Festivals of Indra: The Construction of a South Asian Celebration",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2008.
- Bhattarai. Ananda Mohan(ed.), *The Landmark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Nepal on Gender Justice*, Lalitpur: National Judicial Academy, 2010.
- Demaury, Arnaud, *Kumari Living Goddess Nepal*, Middletown: Independently Published, 2019.
- Dubin, Jenny, "Divine Childhood: How to Reconcile a Little Girl's Rights with the Need to Protect a National Tradition", *Nepali Times*, 2004.9.24-30.
- Gellner, David N., "Review of 'Living Goddess' a Film by Ishbel Whitaker", *Himalaya* 28(1&2), 2010.
- Ghimire, Him Lal, "A Study of Living Goddess Kumari: The Source of Cultural Tourism in Nepal", *The Gaze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9, 2018.
- Hasrat, Bikrama Jit, *History of Nepal*, Hosiapur: V. V. Research Instiute Book Agency, 1970.
- Humtsoe, Zuchanbeni, "The Living Kumari Goddess of Nepal", *Suraj Punj Journal f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9(5), 2019.
- Letizia, Chiara, "Shaping Secularism in Nepal", *European Bulletin of Himalayan Research* 39, 2012.
- \_\_\_\_\_, "The Goddess Kumari at the Supreme Court: Divine Kinship and Secularism in Nepal", *Focaal-Journal of Global and Historical Anthropology* 67, 2013.
- Lidke, Jeffrey S., "The Goddess within and beyond the Three Citi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2000.
- Majupuria, Indra & Patricia Roberts, *Living Virgin Goddess: Her Worship, Fate of Ex-Kumaris & Sceptical Views*, Kathmandu: M. Gupta, 2007.
- Mellowship, John, *The Enchanted World of Kumari*, Varnasi: Pilgrims Publishing, 2007.

- Mocko, Anne T., *Demoting Vishnu: Ritual, Politics, and the Unraveling of Nepal's Hindu Monarc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Oldfield, Henry Ambrose, *Sketches From Nipal*, London: W. H. Allen and Co, 1880.
- Ranjitkar, Siddhi, "Kumari Jatra in Kathmandu", *Kathmandu Metro*, Issue 37, 2009/09/13.
- Rijal, Shiva, "Rituals, State and Legitimacy: A Study in the Context of Political Power Shifts in Nepal",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stic Ideology* 1, 2018.
- Shakya, Durga, *The Goddess Tulaja and Kumari in Nepali Culture*, Kathmandu: Vajra Books, 2013.
- Shakya, Rashmila & Scott Berry, *From Goddess to Mortal: The True-Life Story of a Former Royal Kumari*, Kathmandu: Vajra Publications, 2009(2005).
- Shrestha, Bal Gopal, "The End of Monarchy in Nepal and Its Delicate Journey towards a Republic", *Contributions to Nepalese Studies* 35(1), 2008.
- Toffin, Gérard, *From Monarchy to Republic*, Kathmandu: Vajra Books, 2013.
- \_\_\_\_\_, "Mythical and Symbolic Origins of the City: The Case of the Kathmandu Valley", *Diogenes* 38(152), 2018.
- Tree, Isabella, "A House for the Living Goddess: On the Dual Identity of the Kumari Chen in Kathmandu", *South Asia: Journal of South Asian Studies* 37(1), 2014a.
- \_\_\_\_\_, *The Living Goddess*, London: ELand, 2014b.
- Vergati, Anne, *Gods, Men and Territory: Society and Culture in Kathmandu Valley*, New Dehli: Manohar Publishers, 1995.
- Wright, Daniel, *History of Nep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77.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al Agencies(2008.09.21.)  
『데일리 한국』, 2015.05.22.
- BBC News*, 2007.11.05.
- My Republica*, 2015.12.18.
- Outlook*, 2007.10.02.
- The Himalayan*, 2016.09.15.
- [http://blog.com.np/2007/10/01/gyanendra\\_challenging\\_the\\_peoples\\_verdict\\_visits\\_kumari\\_ghar](http://blog.com.np/2007/10/01/gyanendra_challenging_the_peoples_verdict_visits_kumari_ghar)(검색일, 2020.12.18.).
- [http://medium.com/@razenmanandhar/living\\_goddess\\_kumari\\_and\\_human\\_rights\\_issues](http://medium.com/@razenmanandhar/living_goddess_kumari_and_human_rights_issues)(검색일, 2020.06.11.).

| Abstract |

## Kumari Custom of the Interim Period(2006~2008) in Nepal - From Religious Ritual to Cultural Tradition

Park, Jeong Seok

In Kathmandu Vally it exists the centuries old cultural institution of the child deity, the living goddess Kumari, which is deeply embedded in the history of the Newar society. The living goddess as an incarnation of Taleju, the Nepalese name for Durga. is worshipped by both Hindus and Buddhists. Taleju was the chief protective deity of Nepal and its royal family. It was believed that the king's power derives from her so when he failed to receive her blessing, there would be a great possibility of him losing his kingdom. During the Interim Period(2006~2008) in Nepal, there were two historical incidents with regard to the Kumari custom. One was that Nepal's interim parliament declared the country as a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n 28th December 2007. However, after the 2006 People's Movement, the state power has shifted from the King to the Prime Minister. Even though he was sacked from his position, King Gyanendra visited the living goddess Kumari an hour after Prime Minister Koirala received ritual blessing from her as the head of state on the occasion of 'Indrajatra'. Apparently angered by the King's unauthorised visit to Kumari, Prime Minister has asked Army Chief to cut by half the number of security personnel guarding the monarch's palace. After this incident, the Kumari custom detached from the kingship ritual and became a kind of cultural tradition of the Newar society as well as the state. The



other was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In 2005 a human rights activist makes petition at the Supreme Court accused the tradition of living goddess Kumaris in Kathmandu Valley, in particular that of the former royal Kumari as a child abuse. It insisted that Kumari lives a sequestered ritual life until retirement, and used to legitimate the kingship. In 2008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proclaimed the Kumari custom as an asset for the state and a cultural tradition worthy of preserving. That is, the Goddess Kumari and the Kumari custom has been acknowledged under the secular democratic government as a cultural heritage of Nepal. After the judgment, however, the goddess Kumari is still at her post but now blesses the president of Nepal.

Key Words: Nepal, Interim Period, Kathmandu Kumari,  
Kumari Custom, Religious Ritual, Cultural Tradition

|                                                                     |
|---------------------------------------------------------------------|
| · 논문투고일: 2021년 5월 18일 · 심사완료일: 2021년 10월 20일 · 게재결정일: 2021년 10월 24일 |
|---------------------------------------------------------------------|

